

연수구, 제2청사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운영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방문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연수구 제2청사에 신규로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설치로 송도 지역 주민과 기업들은 부동산·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동산·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구청과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의 법원전용 통합무인발급기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송도 지역 법인 서류 발급 증가로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발급기 이용이 집중되며 대기 시간 지연 등 민원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에 연수구는 지난 5개월 동안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와 범원행정처 설치 승인 등을 거쳐 지난 16일 연수구 제2청사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재호 구청장은 "제2청사 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로 주민과 지역 내 기업의 업무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영종구

의 미래' 청사진 마련 중구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아, 인천시 중구가 영종·옹유지역의 중장기 도시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한 주민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중구(구청장 김정현)는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영종국제도시 일원에서 '영종·옹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발전전략 기본구상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2011년 경제자유구역 해제 이후 인프라 부족과 난개발 위험에 노출됐던 영종·옹유 미개발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미래 비전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설명회는 19일에는 오전 11시 영종구 임시청사에서, 20일에는 오후 2시 용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영종·옹유 지역 발전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영종·옹유 지역의 장기 미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영종구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발전전략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단순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영종구가 어떤 도시로 성장할지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그동안 민간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낮은 사업성과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기본구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인천시, 중기부 인천벤처투자(주) 벤처투자회사 등록 승인

정책 지원과 투자 기능 결합한 벤처투자 체계 구축

창업 초기 넘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민간 연계 확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천벤처투자 주식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 승인으로 인천시는 지역 산업·창업 정책과 연계한 공공 기반의 전문 벤처투자 기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지역 내 벤처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위해 인천벤처투자(주)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인천벤처투자(주)는 인천테크노파

크가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로, 지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업 초기기업을 단순히 보육하거나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력과 사업성, 시장성을 갖춘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인천벤처투자(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 기능을 넘어 인천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산업육성 기능과 연계해 지역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정책 지원과 투자 기능을 결합한 공공형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투자와 민간투자 연계를 확대하고, 지역 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인천시 전략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로봇, 미래차, 항공,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혁신기업이다. 인천시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제품 제작, 생산설비 확충, 공정 고도화 등 제조 기반 강화에 필요한 투자 지원을 통해 기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벤처투자(주)는 민간 벤처캐피탈과의 협력, 정책자금 및 모펀드 연계, 펀드 조성 참여 등을 통해 지역 혁신기업 중심의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이 외부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천 내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하린 기자

남동구,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종호 남동구청장, 민간공동위원장 손동훈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장)는 최근 지역사회 내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으로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에서 이웃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인천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이상욱 부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자살에 대한 이해, 자살 위

험 신호 인지, 위기 대상자와의 대화 방법, 전문가 연계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역 주민과 가까이

서 이웃을 살피는 중요한 지역복지 파트너"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절한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역할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 가구 지원 등 지역복지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화군,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현장점검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봄철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서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 17일 박용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하점산업단지 일원에서 취약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 결과, 하점산업단지 내 옹벽이 토압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은 신속히 예산을 투입해 해

당 옹벽에 대한 보수·보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화군은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 동안 ▲급경사지 55개소 ▲문화재 1개소 ▲절토사면 2개소 ▲산사태 취약지 20개소 ▲농업용 저수지 14개소 등 총 92개소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해 군민이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신문고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국회 교육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인천 직업교육의 우수성과 숙련 기술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8일 도성훈 교육감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와 '독서국가 독서인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

인 창의·비판적 사고 역량을 함양하고, 학교와 가정, 마을을 잇는 시민 독서문화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의 독서 정책을 생애주기별 독서교육 모델로 확산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제도적 지원과 교육청의 현장 실

행력을 연계해 '독서국가 교육 대전환 프로젝트'의 실행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독서골든타임(5-9세) 조기 독서체계 확립 ▲책 읽는 학교 정착을 통한 학생 독서습관 형성 ▲가정독서혁명 확산 및 가족 단위 독서문화 조성 ▲1마을 1권 읽기 등 지역 공동체 기반 독서문화 활성화 ▲독서국가 생태계 기반 구축 및 제도적 확산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의 '읽건쓰'가 국회의 '독서국가' 비전과 결합함으로써,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독서문화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인천의 독서정책을 생애주기별 교육 모델로 확장하고, 국회와 함께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읽건쓰를 바탕으로 학생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웅진군, 퇴원환자 '통합돌봄' 병원과 맞손



웅진군(군수 문경복)은 18일 웅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관의 주요 병원 4개소(곰바로병원, 나누리병원, 현대유비스병원, 힐락암오양병원)와 '퇴원환자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웅진군민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퇴원 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병원들은 퇴원을 앞둔 웅진군민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웅진군으로 연계하고, 웅진군은 연계 받은 환자에게 보건의로, 건강관리, 장기요양, 주거, 일상생활돌봄 등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웅진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었다"며,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지역사회의 따뜻한 돌봄이 시작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남양주시 왕속 도시침단신입단지 투지유치실명회

2026. 03. 25. WED. PM 2:00 엘타워 5F 오르체홀 서울시 서초구

- | 주요 프로그램 |
- 투자환경 및 비전 제시
- 분양정보 및 투자 인센티브 안내
- 투자사례 발표 (우리은행/카카오)



02.23.MON.
1
03.20.FRI.
사전접수

100만 메가시티 남양주에서 기회를 잡으세요
남다른 선택 양질의 미래 주목받는 투자도시, 남양주

- 신한금융그룹 AI 인퍼니티 센터
- 우리금융그룹 디지털 유니버스
- kakao 디지털 허브



주최/주관 : 남양주 문의 : 남양주시 전략산업과 031-590-7383,8646 참가신청 : QR코드로 사전접수 왕속도시침단신입단지에서마지막퍼즐을맞추다